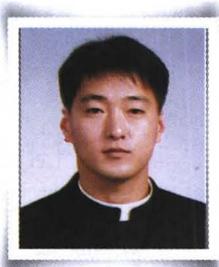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12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 서로에게 내어주라



전우진 신부  
(전북대학병원 원목)

하루 24시간 동안 만  
남과 떠남의 사건이 매  
우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자리로서 병원이라고 하  
는 곳은 많은 것들을 느  
끼게 하는 곳이다. 누군  
가는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의 거친 울음소리와

함께 만나고, 또 누군가는 그 동안의 만남에 감  
사하며 부모를, 친구를 아쉽게 떠나보내곤 한  
다. 그토록 수많은 만남과 떠남의 순간들은 이  
제 단순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이  
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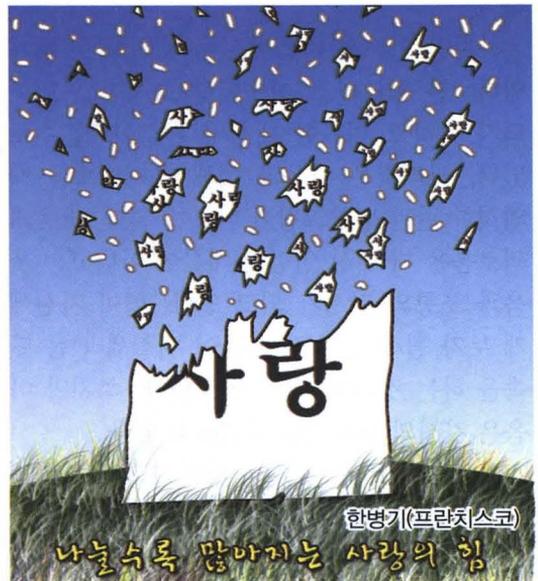
임종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급히  
병실의 환자를 찾아 나섰다. 병실에 들어서서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환자의 가족들을 차례대로 불러 마지막  
인사를 정성껏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아빠, 그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다시 만날 때  
에도 저의 아빠로 있어 주세요”라고 딸이 인사  
를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참았던 눈  
물을 흘리며 아들이 인사를 건넨다. 마지막 인  
사와 기도를 마치자 환자의 감겨진 눈에서 마지  
막 눈물이 흘러내린다. 환자는 가족들의 사랑의  
인사를 뒤로 하고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이별  
을 맞이한다.

“여기 응급실인데요, 환자가 위독하니 급히  
와주세요.” 환자는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서 응급실을 찾았던 것이다. 수녀님과 응급실을  
찾았을 때 환자는 거친 호흡 중에서도 성체를  
영하기를 원했다. 대부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에 실려오는 경우,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상황들  
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강력하게  
성체를 모시기를 원했다. 병자성사를 받으며 환  
자는 힘겹게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서 다시 병상  
에 누웠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성체성혈 대축일인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  
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  
신을 내어 주시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  
리가 서로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  
도의 몸과 피에서 흘러 넘치는 성체성사의 힘으  
로 서로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한다”라  
고 고백할 차례이다. 이제 그 고백은 나와 너를  
살리는 또 하나의 생명이 되어 다가온다.

숨머리 생각



한병기(프란치스코)

나눌수록 많아지는 사랑의 힘

# 위로한다 하지만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깨우쳐주게. 나 입을 다물겠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되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욘 6,25)

남의 가련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통은 언제나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고 비참한 처지에도 떨어질 수 있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같은 인간이기에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마음속에는 원칙적으로 거짓이 없다. 같은 처지라는 심경의 일치만 있다면 위로의 말에는 가시가 없다.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씀만 보아도 위안과 용기를 얻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순수성을 잃을 때가 있다. 친구라 하고 이웃이라 하지만 연민이 되지 못하고 미묘한 내침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 사려깊은 마음과 이해심이 부족할 때 엄격한 판단의 다그침이 나오게 된다. 고통과 괴로움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고 비웃음과 조롱의 단서가 되고 만다. 행여 자신에게 누가 될까 살피고 불뚱이 튀길세라 몸 단속을 하는 것이다. 말은 위로한다 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다.

의로웠던 욘이 하루 아침에 나락에 떨어지자 친구들이 찾아왔다. 욘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그러나 처참한 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의 탓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욘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죄를

추궁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하늘 아래 죄 없는 이 없으니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로를 받을까 했는데 단죄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위로는 커녕 아픔만 더해 온다.

작은 고통이라면 사람이 감당하고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이 커지면 회피하려 든다. 이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앙과 고통 앞에서 자칫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를 찾는다. 위로가 아닌 심판이 되는 것인데도 잘못을 찾는다. 더우기 죄를 논함은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인데도 그렇게들 한다.

불행을 보되 책임은 논해서는 안 된다. 위로한답시고 나무라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절망과 궁지에 몰린 비참한 상황일수록 참된 위로가 필요한 때이니 하늘을 우러러 함께 자비를 청함이 옳을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르시오)

# 건강한 다민족 사회를 꿈꾸며

이주노동사목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 벌써 4년이 흘렀다. 미국 유학생 시절에 체험한 미국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고마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필리핀에 대한 친근감, 꾸르실료 교육 중 예수님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주노동사목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단기간의 경제적 목적으로 체류하는 공장 근로자들로서 이산과 같은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해오는 부인들으로써 도내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할 대상은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덜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언어 소통의 부재와 문화 및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더욱이 초기에는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초기 결혼 가정에서는 종교적 갈등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성당에 모이던 시절에는 많은 필리핀 부인들이 집에는 통일교 집회에 간다고 나와서 몰래 미사



를 드리고 가곤 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부락 단위의 활동으로 개인의 종교는 무시되는 경향으로 더욱 고통 받고 있다.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 보편화 되고 있어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문



권영안(요셉)  
이주노동사목 자원봉사자

제뿐만 아니라 그 2세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유럽에서 일어난 아랍계 이민들에 의한 테러나 폭동이라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한 국가를 구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1민족 1국가를 당연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소수일 뿐이다. 이제는 다민족 체제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포용해야만 한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민족과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를 벗어던지고 그들과 우리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를 소박하게나마 빌어본다.

**입당송** 시편 81(80),17 참조

나는 내 백성에게 기름진 참밀을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배부르게 하리라.

**제1독서** 창세 14,18-20

**회답송** 시편 110(109),1,2,3,4(◎4ㄴㄷ)

◎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로다.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음 환호송** 요한 6,51ㄱㄴ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11ㄴ-17

**영성체송** 요한 6,56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동산동 성당 어른신 월드컵 경기장 환경 정화**

동산동 성당(주임=송년홍신부) 어른신들이 지난 6월 1일(금) 미사 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했다. 약 30명 정도의 어른신들이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들을 주웠다. 동산동 성당은 매주 금요일 미사 후에 어른신들을 위해서 은빛 어른신 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국 정례

을 맞은 형제자매들을 축하하였다. 부상으로 받은 말 씀사람의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속에서 실천해 나갈것을 다짐했다. |최진순 기자

● **우전 성당 효도관광**

우전 성당(주임=박종상 신부)은 지난 5월 31일(목) 본당 어른신 150명, 봉사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순천 소재 낙안읍성과 선암사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또한 가정성화분과 주관으로 김정민 신부(교구 가정사 목 전담)를 초청 강사로 모시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교육을 5월15일(화), 22일(화), 29일(화) 3회에 걸쳐 분노, 가정, 용서, 사랑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홍보국 정례

●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 교육**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카리타스 봉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6월 2일(토)과 3일(주일) 이틀동안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장상원 사회사목국장 신부의 봉사정신에 대하여, 윤석인 서울 카리타스 학교장의 재해구호 봉사자의 역할, 황주태 전라북도 자연재해대책 계장의 자연재해 실태와 예방에 대하여 강의와 진달래집에서 가상재해 시나리오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욱 기자

● **호성동 직인의 피난처 Pr. 1000차 주회**

지난 5월 31일(목) 호성동 성당(주임=김태운 신부) 천상의 모후 꾸리아(단장=김영운) 소속 직인의 피난처 뿌레시디움(단장=박대규)이 1000차 주회 및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다. 직인의 피난처 뿌레시디움은 주로 노년층 단원으로 인후동 성당에서 1988년 4월 8일 첫 주회를 가졌으며, 호성동 성당이 분가하면서 호성동 남성 뿌레시디움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는 10명의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홍보국 정례

● **쌍교동 성당 '어르신 공부반' 나들이**



남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지난 5월 24일(목) 노인으로 구성된 어르신 성경공부반과 봉사자 30여명이 장수군 번암면으로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다. 매주 목요일 갖는 어르신 성서반은 본당 원장수녀의 지도로 그림과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주님의 말씀을 익혀나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야외 나들이는 성서공부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성경을 가깝게 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강인식 기자

● **만경 성당 6월 영명축일 신자 축하**

지난 6월 3일(주일) 만경 성당(주임=백수현 신부)은 교증미사를 드린 후 예수 성심 성월인 유월에 영명 축일

**'사랑짓는 요십이'**가 어려운 이웃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바자회를 엮는다.  
일시: 6월16일~19일 오전 9시~10시  
장소: 전주시 단오제 행사장 (덕진 연못, 후문 주차장)  
매뉴: 간단한 식사, 주류, 음료수

**조상님을 영구보존으로 모시는 효 실천**  
진공 주석유골함/망인초상 금속사진  
**(주)도남**  
이진호(실베스텔)  
문의: 063-282-0138, 018-231-8181

**가톨릭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7월 28일~8월 25일까지  
대상: 초,중,고생  
주최: EDUCARE, MARK 신부님  
문의: 은아책(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어름 성음악 연수 안내**  
일시: 8월 20일(수) 오후 2시~23일(목) 오후 4시(3박4일)  
장소 및 숙소: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성심연수원(부천시 역곡동)  
내용: 합창지휘, 전례와 음악, 성악실기,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작곡 등  
강사: 박대중신부, 최호영신부, 홍인식수녀의 전문과, 청년및 수도자 15만원 일반 20만원  
한국세실리아 성음악협회 www.cecilikorea.com.ne.kr  
문의: 02-338-8978, 010-9549-9528, 010-3740-6582

**해맑은 펜션**  
www.내린천해맑은펜션.kr  
=강원도인제 관광안내= MT 워크샵 / 연수 / 각종단체모임 / 레프팅  
▶ 신과 아름다운 계곡 자연의 고향 강원도인제 해맑은펜션에서는 편안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용순(세레나) 033-463-4486~7  
010-8385-4485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베트남(북부)/하롱베이(5일) 549,000원**  
추가경비 없음. 선착순 12명(접수마감 6월 15일)  
**(유)국민여행사 232-9200, 9300**  
대표 박요안(요한) 016-622-8654  
저희 국민여행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운동 성당 안철문 신부 은경축 행사**



지난 6월2일(토) 오전 11시 나운동 성당 안철문(이나시오) 주임 신부의 사제 서품 25주년을 기념하는 은경축 행사가 금경축을 맞이한 3명의 신부와 동료 선후배 신부, 가족, 신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축하미사와 제2부 축하식에서는 꽃다발과 영적·물적 예물 증정, 동창 신부와 사목회장의 축사, 성가대 특송, 2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영상 등으로 신자들의 축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안철문 신부는 “은경축을 맞이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는 하느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사제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3부 나눔잔치는 나운동 성당 교우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은경축을 축하하고 우리 농산물 쌀을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길용운 기자

● **필리핀 이주민·노동자 친선 농구 경기**

지난 3일 군산대학교 기계공과대 농구장에서 전주 평화동 성당 전보근(안드레아)신부는 평화동 성당 청년회원과 군산에 거주 하는 필리핀 이주민 및 노동자들과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후 봉사자들과 자체 준비한 다과를 나누다음 친선 농구 경기를 가졌다.

참가한 신자들은 “이주노동자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만남을 소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잘못된 편견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 **우림 성당 양업희 빈첸시오의 집 일일봉사**

우림 성당(주임=김진화 신부) 양업희(회장=김학병)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빈첸시오의 집을 방문하여 운동장 배수관 설치 작업을 하였다. 아침부터 때 아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작업에 임한 회원들을 위해 이재후 신부는 돼지 바베큐로 고마움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주임신부가 방문하여 빈첸시오의 집 가족들을 위로하고 양업희원들의 봉사를 격려했다. |홍보국 정례

● **지곡동 성당 성모의 밤 행사**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지난 5월 31일(목)에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다.

7시 30분 미사 중에 주임신부의 화관봉헌, 사목회와 꾸리아의 꽃봉헌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촛불봉헌이 있었다. 그리고 초, 중등부 학생들이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였고 초등부 어린이들의 노래가 이어졌으며 바이올린 독주와 성모님께 드리는 시 낭송과 성가대의 ‘아베마리아’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펼쳐 보였다.

김병운 주임신부는 강론에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빛을 밝히듯이 성모님도 우리가 하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사다리역할을 하신다.”고 설명한 뒤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느님께 빌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당부하였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교구 보도기자가 없는 본당의 주요행사나 소식을 홍보국으로 보내 주시거나, 취재요청을 해주시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   |  |   |
|--|---|--|---|
| <p>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p> <p style="text-align: center;"><b>대 학 약 국</b></p> <p>(전북대병원 신정문 앞)</p> <p>☎(063)275-5700<br/>FAX. (063)275-5760</p>             | <p style="text-align: center;"><b>스스로한의원</b></p> <p>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이카베)</p> <p>적외선체열진단<br/>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p> <p>☎(063)254-1075<br/>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p> | <p>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p> <p style="text-align: center;"><b>전주 항원외과</b></p> <p>평화동 시거리-중간-한국통신 시거리</p> <p>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p> <p>☎ 228-6002~3</p>        | <p>(뽕주문 환영, 케이크 할인판매)</p> <p style="text-align: center;"><b>천사의 양식</b></p> <p>효자동 하이마트 · 광진목화아파트 맞은편</p> <p>김병각(대건 안드레아) 김현내(베로니카)</p> <p>문의 : 255-1004, 016-627-9966</p>   |
| <p>고급 생선(도매, 소매)</p> <p style="text-align: center;"><b>100번 수산</b></p> <p>이복동(마테오) · 이미숙(리디아)</p> <p>삼천동 농협공판장(내)</p> <p>227-7877 / 011-652-8045</p> | <p style="text-align: center;"><b>AIG 생명보험</b></p> <p>믿고 신뢰하시면<br/>최선의 보답을 해드립니다.</p> <p>이완기(빈첸시오)</p> <p>☎ 상담 : 019-9770-2468<br/>212-9339</p>           | <p style="text-align: center;"><b>제 주 관 광 안 내</b></p> <p>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br/>관광 및 성지를 안내<br/>차량 · 호텔 · 펜션 예약 가능</p> <p>☎(064)758-6476 H·P 010-4566-6476</p> | <p style="text-align: center;"><b>&lt;의산&gt; 한빛정형외과</b></p> <p>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p> <p>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p> <p>- 밤9시까지 야간진료 -<br/>☎ 837-2222~4<br/>(영등동 제일차 APT옆)</p> |



#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 ■ 시기동 성당의 발자취

조상들이 남겨준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신앙의 향기를 꽃피우는 곳이 있다. 1903년 신설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신앙의 큰 나무로 자라난 정읍 시기동 성당(주임=경규봉 신부). 본당은 박해의 역사 속에서 성장했던 한국 교회사 특히, 전주 교회사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4년 동안 27분의 사제를 모셔온 시기동 공동체는 신자 수 2800명(8구역 40반, 3개의 공소)의 큰 공동체이다. 본당의 출발지였던 신성 공소는 2003년에 '도 문화재 180호'로 지정되어 복원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03년 시기동 성당은 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지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자기성화'를 위해 시기동 성당 안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기도회는 평생을 일과 기도로 살아온 신앙 선조들의 유산을 잘 보존하는 현장이라고 하겠다.

## ■ 기도하는 공동체

7~8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본당 기도 모임은 기도의 열망이 큰 몇몇 평신도들이 성체 조배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 모임을 갖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씀 묵상과 체험 나눔, 예수 마음기도, 성체 조배 등 비교적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 모임이야말로 본당을 영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자산일 것이다. 특히 작년에 본당의 적극적 권유로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열린 '예수마음기도' 피정을 다녀와서 신자들은 묵상기도의 습성을 들이며 기도의 참맛을 터득하고 있다. 성체 조배실에서 기도가 연이어 이루어지기에 신부님은 아예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성당 열쇠와 조배실 열쇠를 갖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고 말한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신자들의 영적인 삶이 신부님을 감동시킨 까닭일 것이다.

## ■ 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 교육의 장

시기동 성당은 어르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당 사정에 맞추어 어르신 사목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다. 오는 6월 15일에 문을 열 '한글학교'와 9월 개강 예정인 '은빛 성경 대학'이 그것이다. 한글학교는 어르신들이 레지오 회합에 나와도 교본을 못 읽어 답답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목자의 배려로 이루어졌다. 특히 어르신 성경 학교인 '은빛 성경 대학'은 오전 성경 공부에 이어 오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중인데, 본당 신자들의 봉사로 미술 치료, 음악치료,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또한 작년 6월 한 달 동안에는 남원 호스피스 센터

# 믿음으로 꽃피우는 공동체



의 도움으로 본당 안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각자 자신의 임종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어르신 사목을 향한 본당 사제의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 이웃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는 말씀의 실천은 시기동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이다. 수녀님들은 환자 봉성체를 다니면서 지역 사회 안에 소외된 불우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재가 장애인봉사는 종교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환자이면서 돌봐줄 사람 없이 혼자 살아야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찬지원뿐 아니라 가정 간호와 가사 지원을 함께 병행하며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 교구 사회 사목국의 도움이 있어 더욱 힘을 얻은 재가 봉사는 애덕 실천으로 지역 사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 ▣ 유월의 신록처럼 푸르른 공동체

경규봉 주임 신부님은 미사가 끝나면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늘 다정한 웃음으로 신자를 대하는 신부님께 본당 계획을 여쭙었다. “주교님 사목방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본당에서 펼쳐지는 성경 공부도 결국 주교님 사목방침에 따른 것이니까요.” 이에 부응하여 시기동 공동체는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성서 100주간과 거룩한 독서 등 총 13개 반에서 신자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풀고 있으며 곧 개강될 ‘어르신 성서’를 통해 어르신들은 삶의 활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신부님은 주일학교 교리도 성서를 중심으로 하여 초등부는 ‘이야기 성서’를 교재로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고 직접 강의를 해주실 정도로 학생들의 성경 공부에도 열심이다. 그 영향인지 고3 수험생이 되어서도 학생들은 미사에 빠지지 않는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고3 학생들은 맨 앞줄에 앉아 매주 신부님의 안수를 받는다.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고3 수험생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이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후배들에게는 좋은 표양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시기동 공동체는 유월의 신록처럼 푸르른 빛을 발한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 환자 한분 한분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한 환자가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친절히 대해 주셔도 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정말 아파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바로 복지병원에 오기 전에 의사로 40여년을 살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진정한 의사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40여년 의사생활을 마치고 성바로 복지병원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송희선(다니엘)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바로 복지병원은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기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일정기간의 요양을 통해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하고 사회로 돌아가 새

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병원의 전반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최광희 병원장 수녀님(소피아)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특별히 취약지구인 전북 도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병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환자분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신다.

성바로 복지병원은 전북 도민을 위해 세워진 곳임에도 정작 입원환자의 50%정도는 타 지역 사람인데 그 이유로는 복지병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말기 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치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곳에 들어오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성바로 복지병원은 전액무료로 경제적인 능력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곳이 전액무료 시설인 곳은 맞지



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은 아니다. 또 하나 전라북도 내에 아직 많은 분들은 성바로 복지병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고 한다. 다만 성바로 복지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자와 전염성 질환(예;결핵 환자들)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치매나 중풍환자처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24시간 전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성바로 복지병원은 대부분 봉사자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24시간 전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은 입원이 어렵다.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라 함께 걸어줄 사람이다’ 라고 한다. 인생을 살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질병을 만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병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 병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싸울 힘이 생기고 치료할 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성바로 복지병원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병원일거라고 생각한다. 이곳을 찾는 환자 한분 한분이 정신적인 안정 속에서 평화롭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폭적으로 도울 것이다. 취재 : 김동욱 기자

성바로 복지병원은 어떤 분이 오셔도하실 수 있는 봉사거리가 늘 있다고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언제든지 찾아가 보세요. 특별히 월요일 아침 빨래봉사를 하실 남자봉사자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의 : 063-245-5118

## 지구 온난화 방지와 평화의 생태학

때이르게 찾아온 한낮의 무더위와 아침저녁의 기온 차 앞에서 생태계의 변화와 지구 환경의 불균형을 감지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삼한 사온으로 표현되었던 한반도의 겨울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조만간 이 땅 어디에서나 열대 과일이 재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상 기온 현상의 또 다른 이름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근대 문명의 핵심 성장 동력인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곧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은 대기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기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인류의 생태 환경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이른바 산업 혁명에서 시작된 기계 문명의 혁신과 모든 것을 자본의 가치로 파악하여 이해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태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곧 개발과 발전이란 명목으로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생태계의 자기 법칙을 교란하거나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대단위 간척 사업과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인간 배아 복제 연구 등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바다와 갯벌과 산하,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인간 자신마저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대규모 약탈을 발판으로 한 생산 시스템은 무제한의 소비문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평화의 생태학’을 제창하셨습니다. 곧 다른 피조물과의 평화와 인간 간의 평화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그 예의 하나로 제한된 에너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극단적 경쟁을 지적하셨습니다(8-9항 참조). 최근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오늘날 국가 간에 에너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3세계가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공급하면 제1세계가 상품을 생산하는 국제 분업 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강대국과 약소국,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사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안에서 이와 관련된 정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도 더 이상 생태계를 자본의 논리에 따른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모든 피조물의 공동 유산임을 인식하여 생태계의 유기적 순환과 생명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국민 의식과 산업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 신자들과 가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거나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구체적으로 가능한 목표와 실천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소비 행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가능한 영적인 가난(마태 5,3; 루카 6,20 참조)을 찾아 나서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2007년 6월 5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기 산 주교

교구장 일정

- 해성학원 이사회  
6월 11일(월) 오전 11시
- 故서석기신부 1주기 추도미사  
6월 12일(화) 오전 10시 중앙
- 되재공소 기공식  
6월 12일(화) 오후 3시
- 재무평의회  
6월 13일(수) 오후 2시
- 성심여중고 주보축일 미사 및 견진  
6월 14일(목) 오전 10시
- 사제성화의 날 행사  
6월 15일(금) 천호
- 견진  
6월 17일(주일) 오전 10시 황등

미사 · 행사 · 모임

- 사제아버지회 성지 순례  
6월 13일(수) 오전 10시 중앙
- 가정성화 미사  
6월 11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비벤자  
6월 11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6월 11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故서석기신부 1주기 추도미사  
6월 12일(화) 오전 10시 중앙
- 재무평의회  
6월 13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사제성화의 날 행사  
6월 15일(금) 천호
- 익산 하나회 미사  
6월 17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빠르게시디움 간부 직책별 교육  
6월 11일(월) 효자동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1단계  
6월 12일(화) 오후 2시 삼천동
- 새사제 연수  
6월 14일(목) 오전 10시 센터
- 천호 피정  
6월 14일(목) 오전 10시
- 푸르실로 마나니마 피정  
6월 16일(토)~17일(주일) 천호

**내 아이 수준에 맞는 좋은책 고르기**  
 부제 : 학습만화와 명작동화의 문제점  
 일시 : 6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효자 문화의집  
 강사 : 스키마 언어교육 연구소장, 유영호교수  
 대상 : 독서, 논술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참가비 : 무료(자료집 있음)  
 문의 : 02)6403-6986, 063)236-7008  
 016-631-0952 한정환

예 수 회 성소모임

일시 : 6월 23일(토) 16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 예수회 본부(서강대 K관 뒤)  
 주제 : 고등학생 모임  
 문의 : 02)719-1803, 011-9728-1803  
 대상 : 고등학생 이상

2007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성성소모임

대상 : 1)일반부(대학생, 직장인)  
 7월 13일(금) 오후 2시~15일(일) 오후 2시  
 2)중고등부 : 7월 20일(금) 오후 2시~22일(일) 오후 2시  
 장소 : 강남 신정 성심관  
 참가비 : 3만원(교통비 별도)  
 준비물 : 운동화, 여벌옷, 세면도구, 목주  
 접수및 문의 : (주) 02-6364-5500  
 (02) 011-9940-4638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6월 2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분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분당 : 쌍교동, 신흥,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고산,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분당 : 우아동, 팔복, 용안, 순창, 서학동, 월명동, 우림, 신동, 무주, 서신동,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오룡동, 시기동, 함열, 삼천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분당 : 소룡동, 봉동, 금마, 용진, 팔마, 솔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연지동, 미룡동, 부송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분당 : 화산동, 송학동, 지곡

단위: 천원

| 구 분           | 예 산        | 납 부 액      | 비 율     |
|---------------|------------|------------|---------|
| 본 당           | 15,000,000 | 11,493,524 | 76.62%  |
| 사 제 단         | 1,000,000  | 1,323,554  | 132.36% |
|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 1,500,000  | 791,090    | 52.74%  |
| 수 익 사 업       | 500,000    | 232,824    | 46.56%  |
| 합 계           | 18,000,000 | 13,840,992 | 76.89%  |

#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 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면 후  
 F A X: 563-1782

-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 1. 예비신자 환영식: 오늘 교중미사 후
- 2. 파티마성모님 가정순례: 신청 - 구역장, 사무실
- 3. 사제 성화를 위한 9일기도: 6일(수)~14일(목)
- 4. 다음주 선교본당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5. 금주모임: 성모회 - 미사 후, 올뜨레아 - 15일(금) 후8시 자모회 - 16일(토) 후2시
- 6. 다음주모임: 애령회 - 교중미사 후
- 7. 감사헌금: 백원삼 30만원, 김희영 5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67,000원 ■ 교무금: 2,920,000원

##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 연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시편133,1)
- ◎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 ◎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 중입니다.
- 1. 금주: 사목회-교중미사 후
- 2. 매일미사에 적극참여 하시다.
- 3. 특별헌금: 전광명- 20만, 최병순- 91,000원 ※ 감사합니다.
- 4. 금주: 해설- 양희정, 독서- 임태섭, 강정운
- 5. 차주: 해설- 이복철, 독서-곽정근, 박영숙
- 지난주 봉헌금: 358,000원 ■ 교무금: 753,000원

##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 원 중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근 규  
 F A X: 581-1334

- ◎ 새 교구청사 신축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1. 모임안내 ① 성모회: 교중미사 후 ② 자모회: 16일(토) 후3시
- 2. 축기결혼: 오늘 12:30 신랑-이중호(이나시오), 신부-나경희(유스티나)
- 3. 첫영성체: 17일(주일) 교중미사중
- 4. 부모교육: 15일(금) 오전11시10분, E.M사용하기(유용한미생물), 장소-소성당
- 5. 유아세례 신청: 16일(토) 후4시30분
- 6. 성모독산 꾸미기헌금: 장효중(20만), 김용현, 이정순(각10만), 김은자(8만), 김순철(2만)
- 7. 신축헌금 수입누계: 224,598,000원, 입금누계-210,981,270원
- 8. 금주미사: 금주-동용 전6시, 창복 후7시30분, 차주-독지 전6시, 마포 후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815,700원 ■ 교무금: 1,590,000원

##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원 중 훈  
 유지원: 544-5654 서목회장: 손 영 일

- ◎ 2007년은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완납의 해입니다.
- 1. 2006년도 교무금 미납금 납부 바랍니다.
- 2. 성당 테이블 봉헌: 문재현, 최영란, 김태섭, 김용, 안중선, 정영자, 장병오, 김한규, 익명 2명 각 1개  
 ※ 테이블 봉헌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1개 8만원)
- 3. 감사헌금: 김용 20만 ※ 감사합니다. 4. 차주모임: 애령회
- 5. 차주전례: 해설-반영복, 독서-김 용, 박영덕, 봉헌 - 김병선부부
- 지난주 봉헌금: 404,530원 ■ 교무금: 60,000원
- 미사참례자 수: 170명

##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이 세 용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gdong.or.kr

- ◎ 가톨릭센터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1. 한글학교 개강: 6월 15일부터(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2. 모니카회 피정: 익산 글라라 봉채수녀원  
 ※ 피정일시: 6/19(화) 오전 9시~오후 4시  
 ※ 참가대상: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 3. 금주모임: 재속프란치스코회, 제대봉사회(6/10 일), 나래회, 성심회(6/13 수)
- 4. 성당청소: 천상의 모후(6/9 토)
- 지난주 봉헌금: 1,558,700원 ■ 교무금: 2,001,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1,048,000원

##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유지원: 581-0242 서목회장: 박 경 후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1. 금주모임: 올뜨레아
- 2. 차주모임: 연영회, 자모회
- 3. 공소미사: 백자(전8시) 차주-신암
- 4. 본당미사 참례공소: 와룡, 차주-백자
- 5. 미사시간 변경: 15일(금) 아침6시로(사제성화의날)
- 6. 첫영성체 교리: 7월 10일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초등 3년이상  
 ※ 신청마감: 6월 30일까지(수녀님이나 사무실에)  
 ※ 첫모임: 7월 7일 오후 4: 50 부모모임과 함께
- 지난주 봉헌금: 1,045,300원 ■ 교무금: 1,135,000원

## 신 품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 석 역

- ◎ 오늘은 지구내 어려운 본당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모임: 올뜨레아
- 2. 차주모임: 연영회, 자모회
- 3. 공소미사: 백자(전8시) 차주-신암
- 4. 본당미사 참례공소: 와룡, 차주-백자
- 5. 미사시간 변경: 15일(금) 아침6시로(사제성화의날)
- 6. 첫영성체 교리: 7월 10일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초등 3년이상  
 ※ 신청마감: 6월 30일까지(수녀님이나 사무실에)  
 ※ 첫모임: 7월 7일 오후 4: 50 부모모임과 함께
- 지난주 봉헌금: 1,045,300원 ■ 교무금: 1,135,000원

##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찬 주

- ◎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 ◎ 교무금 및 가톨릭센터 신축기금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 1. 공소미사: 태인-13일(수), 동막-14일(목) 후7시30분
- 2.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 6일(수)~14일(목)  
 ※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3. 사제성화의 날 행사: 15일(금) 천호피정의 집
- 4. 주일학교 차량봉사자: 16일(토)-김호연, 이익규, 안장수
- 5. 우림, 신태인 청년회 농활, 단합대회: 22일(금)~25일(월), 태인공소
- 지난주 봉헌금: 1,105,500원 ■ 교무금: 946,000원

##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정 신  
 유지원: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신 용 철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jdsd.or.kr

-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 ◎ 축! 첫 영성체 - 오늘 교중미사중 ※ 19명의 어린이 축하합니다.
- 1. 사제 성화를 위한 9일 기도: 6월 6일(수)부터~14일(목) 주일포함  
 ※ 사제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 ※ 사제 성화의 날: 6월 15일(금) 미사 시간 변경 전10시 -> 후7시 30분
- 2. 한교공소 미사: 6월 17일(주일) 후3시(본당출발 후2시 30분)
- 3. 산악회 산행: 6월 11일(월) 충남 금산 "진락산" 체육관 앞 전8시30분 출발
- 지난주 봉헌금: 1,333,810원 ■ 교무금: 739,000원
- 센터 신축헌금: 320,000원

##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중 신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서 욱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 1. 교중미사중에 첫영성체식이 있으며, 인원은 15명입니다.
- 2. 교중미사 후에 마르타, 올뜨레아
- 3. 금주모임 ① 13일(수) - 엠마우스회, 숲정이회  
 ② 15일(금) - 성모회 ③ 16일(토) - 자모회
- 4. 14일 저녁미사 후 서시간
- 5. 16일(토) 봉월공소 미사 후8시
- 6. 신축헌금: 김순례 5만, 박운 1만, 김진국 5만, 박옥진 10만
- 지난주 봉헌금: 1,663,050원 ■ 교무금: 2,015,000원

##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임 정 현

- ◎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 ◎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 첫영성체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와 축하를 부려 드립니다.
- ◎ 매월 셋째주(다음주)는 성소후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 교구청신축헌금: 최적이-5만원
- ◎ 6월15일(금): 사제 성화의날 사제단 합동미사(가톨릭센터)가 있습니다. 사제들의성화를 위하여 기도부탁 드리며 당일 본당미사는 없었습니다.
- 1. 금주: 첫영성체식(교중미사중) 성모회(교중미사 후) 대건안드레아회(교중미사 후)
- 2. 차주: 모니카회(교중미사 후) 아브라함회(교중미사 후)
- 3. 승합차운행 봉사자: 금주-박형관(프란치스코) 차주-박영민(요 셉)
- 지난주 봉헌금: 540,900원 ■ 교무금: 370,000원

##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오 19,14)”



1. '일등하기 보다 꼴등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꼴등하기 보다 더 어려운 것은 3등이라는 것을 한 소년의 모습에 담아 보여준 이란영화가 있다. <천국의 아이들>(The Children Of Heaven, 1997, 87분)이다. 이 영화도 지난달에 소개한 사실주의 영화, <자전거 도둑>의 주제와 플롯구조가 매우 유사한 영화이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에 나오는 남매 '알리'와 '자라'도 실제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평범한 어린이들이라는 점과 그들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겪는 실제체험을 그대로 영화에 옮겼다는 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자전거 도둑>이 가난하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파스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를 담아냈다면, <천국의 아이들>은 그 자리에 오빠와 여동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남쪽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알리는 엄마의 심부름 중에 잠시 한눈을 팔다가 여동생 자라의 구두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도 하나 뿐인 여동생의 구두였고, 그 구두를 다시 사기에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알리였기에 이 사건은 어린 아이에게는 삶의 위기로 다가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 자라는 눈물을 글썽이고, 알리는 여동생에게 구두를 꼭 찾을 때까지 자신의 운동화를 함께 신자고 달란다. 결국 알리의 운동화를 같이 신게 된 남매는 오전반인 자라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오면 알리는 그 운동화를 신고 전력질주를 해보지만 항상 학교에 늦게 된다. 여동생 자라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구두를 신은 아이를 목격하게 되고 그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그 아이가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장님이라는 사실에 구두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다. 며칠 후에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이 이들 남매에게 접수되고, 매일매일 골목달리기로 단련된 알리는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된다. 대회에 나가기 된 알리는 자라에게 약속한다. “꼭 3등상을 받아올게, 오빠를 믿어.” 전국에서 모여 온 아이들의 달리기를 보며 TV와 신문사에서는 취재가 시작되고 모두가 1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소년 알리는 1등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3등, 3등만이 목표였다. 그러나 알리에게 1등보다 더 어려운 것이 3등이었다. 알리는 마지막까지 3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하게 된 것이다. 대형 트로피를 들고 1등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는 소년의 표정이 너무도 우울하다고 기자들은 웃으라고 재촉하지만, 결국 소년의 큰 눈동자엔 왕방울만한 눈물이 떨어진다.

3. 우선 이 영화는 알리가 잃어버린 것이 '기껏해야 여동생의 헌구두'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 우리에게서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코 다른 구두를 훔치지 않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바로 알리와 자라는 자신들의 부족한 처지를 잘 알지만 그걸 정직하게 타개해나가려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생에게 새 운동화를 얻어 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생기게 되자 알리는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한다. 마라톤 대회에서 1등도, 2등도 아닌 운동화가 상품으로 걸린 3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꼬마에게는 거의 '소명'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인 것이다. 영화는 우리가 볼 때는 겨우 운동화 한켠레지만, 그 한켠레 안에는 자신보다도 '동생을 위한 애정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고, 그것을 위해 소명처럼 달려가는 알리의 모습을 통해 영화제목처럼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오 19, 14)”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한다.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